

의원들 자리 비우고, 거물 증인 불참 확실히

초반부터 '김 빠진' 인사청문회

같은 날 열려 도덕성·자질 검증 헛구호 우려

8·8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초반부터 빠진 모습으로 진행되면서 '부실 청문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같은 날 청문회가 풀려 있는 경우도 있어 야당이 노리던 철저한 도덕성과 자질 검증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3일부터는 전열을 가다듬어 철저한 청문회를 다짐하고 있지만 중요 증인들의 불참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일 진행된 이재훈 지식경제 부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원은 낮 뜨거운 칭찬 퍼레이드를 벌였으며 야당의원들은 날카로운 검증이 부재했다는 평을 받았다.

청문회가 한창인 시간에 청문위원 여러 명이 지역구 행사를 핑계로 자리를 비웠다. 또 청문회가 저녁시간을 넘기는 게 예상지만 이날 박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후 4시 반까지 끝났다.

국회는 23~26일 인사청문회를 계속한다. 이번주에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등 현 정부 '실세'들의 청문회가 실시되는 만큼 여야간 긴장도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정은 ▲23일 이재오 특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24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24~25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 ▲26일 이현동 국무총리 내정자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청문회 둘째날인 23일에는 하룻동안 후보자 다섯 명의 청문회가 풀려 있어 여야가 당력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결정적 한 방'으로 장관 내정자 2~3명을 낙마시키겠다고 연일 각종 의혹을 쏟아내는 등 총공세에 들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다.

특히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박연차 전 태광산업 회장과 김 후보자에게 돈 신부름을 한 의혹이 있는 뉴욕 한인식당 사장 박현규씨,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이 제기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청문회에 대거 불참할 것으로 보이며서 부실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조현오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인과 관련, 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전선을 흔들려는 것도 철저한 검증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일부 인사들의 낙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부인 윤 모 씨가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윤 씨가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오피스텔 2채의 분양권을 사고,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은 채 2004년 10월과



청문회 준비 분주한 국회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청문회 출석할 장관 후보자와 증인들의 이름표가 준비되고 있다. /연남뉴스

2005년 4월에 각각 파는 과정에서 분양권 전매를 했기 때문에 분명한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부인 윤씨의 위장 취업 의혹이 있고 있는 해당 업체가 현 정부에서 판공사를 과거보다 3배나 수주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다 공단으로부터 부당 이득금을 추징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후보자별 청문회 핵심 쟁점은

김태호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

8·8개각 인사청문회 하이라이트인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급주 일제히 열리면서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총리 후보와 이 특임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겨냥해 파상공세에 나설 예정이나 해당 후보자들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대해선 구체적 자료를 갖고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으로 임명됐고 이 내정자가 사실상 남 사장 연임에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 측은 "남 사장 유임이 결정된 2009년 2월 당시 이 내정자는 미국 체류 중이었다"며 "총선에서 낙선한 뒤 미국에 머물렀던 이 내정자가 기업 인사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 = 이 내정자의 딸이 4000여만원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데 대해 증여세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내정자측은 증여세

주목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올해 초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지난달에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차액도 500만원 밖에 안된다"고 각각 설명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 지난 5년간 강연료 소득에 따르는 세금 탈루 의혹과 함께 지난해 백운호 당시 국제청장 내정자 청문회에서 "나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밝힌 세금 탈루 가능성이 불거졌다. 진 내정자 동생의 조경학사가 은평뉴타운 등에서 대형 공사를 잇달아 수주한 것에 대해선 진 내정자의 영향력 덕분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미국에서 출생한 딸이 이중국적 상태에 있다가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고, 이후 자격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오 대우조선 사장 유임 역할했나

이주호 딸 수익증권 증여세 누락 의혹

◇김 총리 후보자 =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이 최대 쟁점. 민주당은 김 후보가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던 2007년 4월 미국 뉴욕을 방문했고, 뉴욕의 한인식당 사장 박현규씨가 박연차 전 태광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에게 수만 달러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측은 지난 1월 검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로 판명됐으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본인은 총리 지명 이후 "태산이 떠나갈 듯 시끄러워도 진실이 아니면 깃털 하나 나오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도지사 재직시 재산 10배로 증가 ▲김 후보 부인의 뇌물수수 ▲신용카드 연간 사용내역 저조 ▲부인과 장모 공동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 ▲두 자녀의 예금증가액에 대한 증여세 탈루 등 백화점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3류 소설에 무슨 내용할 가치가 있겠느냐"고 밝히면서 부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질 분이 생길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특임장관 내정자 = 민주당은 2008년 이 내정자 측근 3명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결정을 6개월 앞두고 이 회사 고문

문제에 대해선 딸이 어렸을 때부터 모은 용돈과 인턴 보수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 지난 1995년부터 10년간 자녀의 진학시기에 맞춰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5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4억2000만원에 분양받은 일산의 한 오피스텔을 2006년 6월 처분한

진수희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가능성

이현동 석사논문 표절·위장전입 의혹

뒤 소유권 등기를 2007년 2월로 늦춰 양도소득세 1억여원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부인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부인 명의로 2006년 경기도 양평의 임야를 구입했다가 지난달 18일 처분한 것은 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 내정자는 위장전입 문제는 사실상 인정하며 사과했다. 양도소득세 회피 의혹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6501만원을 납부했다"고 양평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샀으나 이후 전원

며 "실수였다 해도 잘못은 있었다"고 밝혔다.

◇이현동 국제청장 내정자 =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석사논문 작성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야당은 이 내정자가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고 주장한 안원구 전 국제청 국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6501만원을 납부했다"고 양평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샀으나 이후 전원

민주, 결정적 한방 터트릴까

김태호 '스폰서' 의혹 캐기 집중

상임위원 히든카드 1~2장 준비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방'을 터트리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예고편보다 나은 본편을 만들겠다"며 2~3명 이상의 낙마를 호언장담한 민주당으로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거둘 경우 자칫 정국 주도권을 고스란히 여권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주말 사이 상임위원 팀투력을 강화하며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상임위원별로 현장에서 폭로할 '히든카드'를 1~2건

씩 아껴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한 결정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지출내역 뒤에 '스폰서'가 있다는 의혹을 캐는데 화력을 집중한다는 전

락이다. 물증 확보를 위해 일부 보좌진을 경남에 급파하기도 했다. 가장 문제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다 흐려놓아 이 이상급이 되는 재료가 없으면 여론의 관심을 못받는 청문회

가 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검정치 청문회'로 관심이 분산되고 있는 점도 고민스럽다.

당 관계자는 22일 "재보는 쏟아지지만 물증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박 원내대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하며 근거잡기에 나섰다. 특히 첫 순서였던 지난 20일 청문회가 빠빠진 공세로 심하게 끝나자 단단히 화가 났다고 한다.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다 공단으로부터 부당 이득금을 추징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광주교육대학교(제2기)
개강일시	·토요일 오후반 2010. 9. 4(토) 14:10
모집기간	2010. 7. 23(금)~9. 4(토)
수업기간	2010. 9. 4(토)~2011. 2. 26(토) (6개월 24주)
모집인원	·기초반:30명
수업시간	·매주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 300,000 ·우체국:503557-01-005018(예금주:광주교대)
수료후특전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 수료증 수여 ·한자교육진흥회 이사장 자격증 취득기회부여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 (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의: 062)520-4243 010-9886-8964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eue.ac.kr/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체제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 했다. 상대를 보기도 못한다면 즉 "낮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억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사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종이가 나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도 명했다 하여 부처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2010년 2학기 신입생 모집(15주간)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편전화
조선대학교	관상초급	9월3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관상고급	8월31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사주명리학초급	9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00,000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고급	9월2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00,000원	520-2516

● 조선대 등록 - 8월27일까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등록시 10%감면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8월2일부터 전화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연구원장김경준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국방부지정 장교직업보도교육기관 한국산업관리공단 직업교육기관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 모집기간: 2010년 7월 28일(수)~2010년 8월 31일
■ 수 강 료: 300,000원
농협 175375-56-065137 예금주: 이종순
■ 모집인원: 각 과정별 25명

과정명	교육과목	개강/연수기간
제 11기 한자지도사 (기초반)	·부수해설, 사자소학 ·1,800자(상용한자)자원풀이 ·중학교한문교과서 단문/산문/한시 한문법 지도법 ·중학교 한문교육과정 해설	토요일반 9월4일 14:00~18:00 월요일반 9월5일 09:00~13:00 /2010.09월4일~2011.02월12일(24주)
	·추구법·명심보감 ·중·고교 한문교과서 단문/산문/한시 한문법 ·고등학교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월요일반 9월5일 09:00~13:00 /2010.09월5일~2011년 2월14일(24주)
한문지도사 1급 (심화과정)	소학·대학 경륜요결·중용	일요일반 9월5일 14:00~18:00 /2010.09월5일~2011년 2월11일(24주)

한문지도사 특급과정(논어,맹자)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수료후 특전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증 및 이수증 수여
- 각급학교(방과후학교) 감사 및 한자급수 시험반 출강
- 시·구원·문화·복지센터 한자지도인 감사
- 한문학원 개설 및 한자·한문지도사 감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자격취득기회

국가공인자격관리 운영기관(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광주시교육청 특수분야(한자·한문)직무연수기관
한국한자·한문지도사연수원 시행
문의안내 ☎ 062)366-9666, 367-8666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전남대학교(5기)	광주여자대학교(11기)
개강일시	·월요일 주간반:2010. 8. 30(월) 09:00 야간반:2010. 8. 30(월) 18:00	·금요일 오전반:2010. 9. 3(금) 09:10 ·토요일 오전반:2010. 9. 4(토) 09:10
모집기간	2010. 7. 23(금)~8. 30(월)	2010. 7. 23(금)~9. 4(토)
수업기간	2010. 8. 30(월)~2011. 2. 21(월) (6개월 24주)	2010. 9. 3(금)~2011. 2. 26(토) (6개월 24주)
모집인원	·기초반:주·야간반 각 30명 ·심화반:주·야간반 기준전원생	·기초반:금·토요일 각 30명 ·심화반:금·토요일 기준전원생과 편입생
수업시간	·매주월요일 주간반 09:00~12:35 야간반 18:00~21:35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수강료	₩ 300,000 ·광주은행:074-107-004114 (예금주:전남대 평생교육원)	₩ 300,000 ·광주은행:148-107-307803 (예금주:광주여대)
수료후 특전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 수료증 수여 (A)한국관광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각 현문학회 및 학원개설 및 감사 추천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 (1급까지)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 수료증 수여 ·한국대학 부설 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부여 (2단계 수료시)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 (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의: 062)530-3873-5 ▶지도교수: 010-2611-1171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je.nju.ac.kr	▶문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lways.kwu.ac.kr